

미국, 섬유 85-90% 관세 즉시철폐

섬산연, 수입액 기준 61%는 품목기준 최고 90% ... 10-15% 점진철폐

미국은 한-미 자유무역협정(FTA) 협상 타결안에서 한국 섬유 수출품목의 85-90% 가량을 <즉시 관세철폐>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고 하명근 섬유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이 4월3일 밝혔다.

4월2일 한-미 협상당국은 타결안을 발표하면서 개별품목이 아니라 미국의 수입액(한국의 수출액) 기준으로만 61%를 즉시 관세철폐 대상으로 합의했다고 소개했었다.

결국 금액 기준 61%는 품목으로 치면 최고 90%에 해당한다는 것이다.

하명근 부회장은 이어 “품목 기준으로 나머지 10-15%는 5년 또는 10년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관세를 없애는 것으로 합의됐다”면서 “(당초 일부 거론됐던) 3년간에 걸친 관세 철폐는 없는 것으로 안다”고 말했다.

또 “얀포워드(원사기준) 적용예외 대상품목은 4월2일 발표된 것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안다”고 덧붙였다.

한-미 양국은 4월2일 해당품목으로 린넨, 리오셀, 레이온, 여성재킷, 남성셔츠 등을 언급했었다. <저작권자유
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7/04/03>